

01 교회소식

“행복, 기쁨, 감사 넘치네~”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는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며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한 페낭만민농아교회.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표증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03 선교

변함없이 함께하는 사랑

새해에도 해외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져 영광 돌리고 있다.

04 간증

살아 있는 기적!

뇌종양으로 인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뒤, 이 땅에 살아 있는 자체가 기적이 되었다는 조수경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913호 2020년 1월 1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4살 때 잃은 청력이 살아났어요!”

마리카르멘 성도 (29세, 베네수엘라)

저는 정상으로 태어났지만 4살 때 놀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그 후유증으로 점점 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청각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지요.

그런데 2019년 9월, 친구의 전도로 말레이시아 페낭만민농아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ZOOM(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어 동시통역으로 페낭만민농아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 많은 농아가 함께하는 것을 보며 매우 놀라웠습니다.

저희 가족은 크리스천이었기에 다른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봤지만 마음에 크게 와 닿지 않았는데, 만민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간단명료하면서도 영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주시니 큰 은혜가 되었고 사모함이 생겼지요.

그 뒤 주일예배와 금요철야예배, 수요일예배, 다니엘철야 기도회까지 화상을 통해 빠짐없이 참석하던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12월 1일, 주일 저녁예배 설교 후 녹화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을 때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며 기도를 받는데 귀에 뜨거운 느낌이 들면서 그때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 TV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자동차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 12월 12일, 병원 검사를 받았지요. 그 결과, 양측 귀의 청력이 크게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듣고 휴대폰 소리도 들립니다. 당회장님의 환자기도 소리를 듣고 목소리도 구분할 수 있지요. 더욱이 말씀을 듣는 대로 회개하며 변화될 때마다 청력이 계속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페낭만민농아교회



동양의 진주로 불리는 말레이시아 페낭에 위치한 페낭만민농아교회(담임 지정훈 목사). 천국을 연상케 하는 밝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 가족처럼 친근하게 교제하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충만함과 행복이 가득하다. 하나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초대교회처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까닭이다.

인터넷 화상을 통해 수어 동시통역으로 만민중앙교회의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져 믿음이 더하고 천국 소망으로 뜨겁다. 무엇보다 의술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고 평생 농아로 살아야 했던 성도들이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귀가 열리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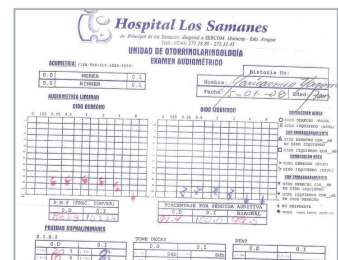
구이영 성도(여, 28세)는 선천성 농아였지만,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 받고 양쪽 청력이 살아났다. 44년 만에 소리를 듣게 된 광푸림 성도(여, 49세), 40년 만에 왼쪽 귀가 열린 이영 성도(여, 54세), 왼쪽 귀가 열리고 뼈 암을 치료받은 독일 레베카 성도(여, 51세) 등 무수히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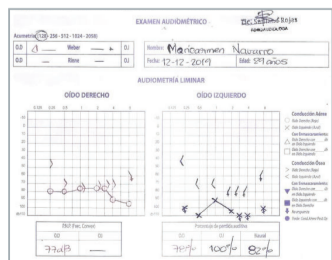
조셉 림벡필 집사(남, 36세)는 시력까지 좋아져 안경을 벗었으며, 11년간 불임으로 고통받던 통쉬위잉 집사(41세)는 화상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고 엄마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 같은 성도들의 간증은 인터넷과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전해져 교회의 부흥까지 이루고 있다. 20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까지 22개국에 500여 명의 성도로 크게 늘었다. 태국, 중국, 덴마크, 페로제도, 프랑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미국, 케냐, 브라질, 인도, 캐나다, 호주 등 농아선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청력 검사



기도 받기 전 ▶ 2008년 검사한 청력 검사에서 양측 귀 모두 90db 이상 심한 난청을 보이고 있음.



기도 받은 후 ▶ 2019년 검사한 청력 검사에서 양측 귀 모두 70db 이상으로 호전된 소견을 보이고 있음.



눈에 보이는 표증으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사도행전 3:22)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많은 성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표적들을 베풀어 주시며, 시대를 좇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또한 손에 만진 바 되도록 표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증으로 세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맡기셨고, 그들을 통해 맺히는 열매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랑의 표증으로 세운 신 사람들의 사랑

1)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며 모든 얽매는 것들에서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온갖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질병이나 연약함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시기에 표증된 사람들을 보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질병과 연약함과 온갖 괴로움에서 해방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을 시대마다 보내셨지요.

이런 체험을 통해 영적인 믿음, 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고

세상적인 것은 끊어 버리며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좇아 살아가게 됩니다. 곧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받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마음에도 이 사랑이 임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소유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실 수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육을 입어 보셨기에 인생들의 고통에 대해 더욱 안타깝게 여기셨지요.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3) 하며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있었기에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님처럼 섬기고 붙좃았습니다. 심지어는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주었으리라’ 할 정도로 간절한 사랑을 소유했지요(갈 4:15).

3)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난해 구절들과 수많은 비유, 또한 묵시로 기록된 내용들은 아무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본을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친히 풀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서는 “...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눅 12: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 1:12) 했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엡 1:17)라고 했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기에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며,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게 되므로(출 33:20)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직접 나타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전지전능하심뿐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또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는 사실들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고, 동시에 이러한 증거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해 주었지요(행 2:22).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따르는 역사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증거했습니다(막 16:20).

그 중에도 사도 베드로의 권능은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가 지나갈 때는 병든 사람을 거리에 눕혀 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랐다고 합니다(행 5:15). 또한 사도 바울의 권능은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을 때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갈 정도였지요(행 19:12).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히 13:8). 더구나 지금은 예수님 당시보다 고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한 데다 날로 지식이 더해지고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으며,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믿는 경향이 많으므로 더더욱 큰 표적과 기사가 따라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요 4:48).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2. 표증된 사람들을 통해 맺히는 열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해 주는 표증들이 있기에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게 되며 빛 가운데, 의 가운데, 진리와 선 가운데로 나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가면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응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17~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한 것처럼 표적이 따르게 되지요.

또한 이렇게 표적이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모든 교회를 깨우고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표증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한다면 과연 충만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표증이 없어도 중심에서 영적인 것을 깨우치고 온전한 성결과 능력과 권세를 사모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갖가지 표증들이 있음으로 인해 믿음이 더해지고 천국 소망이 넘쳐나서 세상 오

락 등을 쉽게 끊을 수 있지요. 또한 세상 것을 버릴 때만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증된 사람들을 세우신 그 섭리를 깨달아 더욱 감사하며 신속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표증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 축복으로 함께하시는 기록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깊이 신뢰하고 함께 함으로 태양과 달의 운동을 멈추게 하는 권능을 받았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붙좃춤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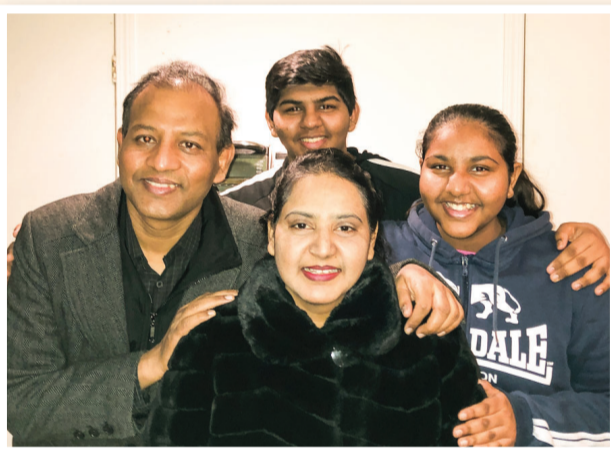
또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베다니의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기도로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오라베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 걸어 나오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표증된 사람들을 섬김으로 축복받은 경우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말씀으로 바로 정립되고 그 말씀을 행해 든든히 다져질 때라야 반석 위에 선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의심과 미혹의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면 곧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표증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고 소망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했으니 눈에 보이는 표증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지자를 신뢰하여 믿음에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받으며 항상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오십견과 돌출된 어깨뼈가 사라지다니!”

누스라드 성도 (44세, 캐나다 토론토만민교회)

저는 오른쪽 어깨에 오십견과 어깨뼈 돌출로 인해 통증이 아주 컸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기에 일을 잘할 수 없었고, 팔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희는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요.

이 문제는 저희 가족이 난민으로 있던 20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인 저희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2014년 제3국에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난민 신분이었기에 법적으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고생하다가 2019년 7월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임스(유현수 집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저희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제임스를 통해 알게 된 다니엘(이성일 선교사)도 저희 부역에 식료품들을 넉넉히 채워 주었지요. 두 분은 천사처럼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주일이 되자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토론토만민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마쳐지니 영상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는 말씀에 저는 제 손을 오른쪽 어깨에 얹고 간절히 기도를 받았지요.

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출돼 있던 뼈가 더 이상 만져지지 않았고, 통증 없이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후 지금까지 통증이 전혀 없으며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안도 되찾아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합니다.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경 씨는 항상 밝고 행복해 보여요!”

저는 이 말을 종종 듣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도 자랑할 만한 특별한 재능도 제겐 없지만, 너무도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나를 만나주신 분, 아버지 하나님 이 늘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의 하루하루가 기적이 되었으니 어떻게 그 은혜를 잇을 수 있을까요?

제가 스무 살이 되던 1997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계속되더니 얼마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공이 풀리고 입에 거품을 문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병명은 뇌종양이었고 뇌수종, 뇌수막염 등 합병증까지 심해 뇌에 물이 많이 찬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수술실에 들어가야 했지요. 수술 후 며칠이 지나 의식을 되찾았지만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중환자실의 환자들이 하룻밤 사이에도 한두 명씩 싸늘한 시체가 되어 나가는 것을 보며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위급한 상황만 막는 수술을 한 것이었기에 종양 제거 수술을 위해 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종양 제거 수술 당시 이미 신경 쪽으로 작은 종양들이 퍼져 있어 큰 종양 하나만 떼어내고 나머지는 그냥 덮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수술 후 박사님은 일단 퇴원하라고 하시며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 간구로, 병상에서 전도 받아 주님을 찾으니

저는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인해 앓아 있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눈의 초점도 맞지 않아 잘 볼 수 없었고 잠이라도 눈을 뜨고 있으면 통증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웠지요.

그때 어머니는 제 치료를 위해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시며, 누워있는 제게 ‘십자가의 도’ 설교 테이프를 계속해 들려 주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니의 지인이 오셔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치료 역사에 대해 소개해 주시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만민중앙교회에 가보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대” 하고 말씀하실 때, 저는 “지금 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세밀히 풀어주시는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듣다 보니 제게도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가 나올 때면 절실한 심정으로 그것을 붙들었지요. 때마침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개최 소식에 저는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진액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면 한번 가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화장실도 기어서 가야 했던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갈 수 있었지요.

“저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조수경 집사 (2가나안선교회)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

1997년 5월 5일, 만민중앙교회 성전 본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알 수 없는 기쁨이 임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백부장(마 8장)의 믿음’에 대해 설교하실 때 ‘나는 이미 치료받았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지요. 단에서 전체기도를 해 주실 때에는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비오듯 흘렸고, 이후 제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치료받겠다는 확신이 드니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받은 응급환자 운송 카드와 긴급 연락처, 그리고 많은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전폭적인 주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매 시간 임하는 은혜 가운데 셋째 날 집회 시에는 주님을 잘 믿으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에도 귀 기울이지 않던 지난날이 떠올라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전체기도 후 환자들에게 일일이 기도해 주셨는데, 제 머리에 당회장님의 손이 닿자마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짜릿한 기운이 흘러내렸지요.

찬양할 때에는 언제 아팠냐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손뼉을 치며 찬양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가만히 앉아 찬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뇌종양을 치료받고 구름 위를 걷는 듯 행복한 삶

부흥성회 마지막 날, 마침 병원 정기 검진 받는 날이었습니다. 검진 후 박사님은 차트들을 살펴보며 가우똥하시더니 제게 “수경이 굿(Good)! 수경이 굿(Good)!” 엄지를 치켜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종양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치료받기 위해 만민기도원 환자 집회와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통이 사라지고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등 모든 이상 증세가 깨끗이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저는 온전하게 치료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꿈인지 생시인지, 구름 위를 걷는 듯했고 제 입에서는 연신 “행복하다”는 고백만 터져 나왔지요.

세상 의학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저를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만민의 수많은 성도님이 크든 작든 모두 이런 은혜를 체험하였고, 치료뿐 아니라 단 한 번의 기도로 쏟아지던 폭우가 그치는 등 천기를 움직이는 권능까지 목도하였습니다. 또 지금은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각종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권능의 기도를 통해서 뇌종양을 치료해 주시고 지난 23년 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사천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사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암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